

한국디자인사학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Inauguration of the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정병규(정디자인)
Chung Byoungkyoo
(Chung Design)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한국디자인사학회’의 공식적인 출발 소식을 전해 듣고 떠오른 말이다. 오래전 디자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우리 디자인계에는 대학에 분야별 학과도 버젓이 있는데 왜 한국 디자인사 강의는 없는지 당혹스러웠다. 거의 반세기 전 일이지만 어제 같다.

그동안 뜻있는 사람들이 몇 차례 한국 디자인사의 운동장에 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회라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실현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학회의 공식화, 제도화에 수고한 분들께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학술지가 발행됨에 고마움과 함께 남다른 감회를 담아 축하를 드린다.

‘한국디자인사학회’의 출발은 하나의 선언이다. 우리 디자인의 성인식을 치른다는 역사적 선언이다. 이 말은 한국 디자인계에 새로운 허리 세대가 등장했고 자리 잡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선배 세대들의 무관심이라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현실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다. 디자인계에 몸담은 한국 디자이너 누군들 그동안에도 우리 디자인사의 결락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 실천으로 등장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디자인의 역사에 다가갈 때 부딪치는 문제들의 성격, 특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논의해야 할 디자인사적 대상이, 현대에 한한다면, 현실의 당사자들과 겹치는 한국 현대 디자인의 상황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한국 디자인의 자화상을 스스로 그리기가 쉽지 않았을 터이다.

한국 디자인의 역사가 기술된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이 명사의 시대에서 동사의 시대로 진입함을 말한다. 한국 디자인을 역사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능동적 동사 행위이다. 이것은 우리 디자인이 스스로 '이월 가능한 가치'를 생산하며 또 한국의 역사, 한국 문화사의 일원으로 진입함을 뜻한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 산업이라는 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삶의 문화 생산에 대한 디자인계의 역량을 가시화, 가치화하는 것이며 넓게는 한국 디자인 인문학의 실천행위이기도 하다.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 디자인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사실이 엄중한 현실이다. 이들, 한국 현대 디자인의 세 번째 세대인, 새로운 세대가 우리 디자인의 역사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 디자인, 구체적으로는 한국 현대 디자인이 성년기에 진입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 의식과 그들의 역사의식의 발현에 때를 맞추어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또 다르게 가늠할 디자인 관련 박물관들을 설립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듯하다. 디자인박물관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한국 디자인의 역사의식이 초래하는 또 다른 분출일 것이다. 이제 발족하는 '한국디자인사학회'는 앞으로 설립될 디자인 관련 박물관들이 역사적 가치의 실현이 아닌 자칫 성급한 행정과시적 서두름에 들러리나 서서는 안된다. 더불어 역사의식 없는 무분별한 수집열에 들떠서 박물관이 고물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책임감과 이에 따르는 담론 생산에도 성과를 쌓아야 하는 고충도 따를 것이다. 거의 붕괴하다시피 한 오늘의 디자인 현장 속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디자인 역사의식으로 적극적이며 거시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학술지 창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44